[별첨 2] 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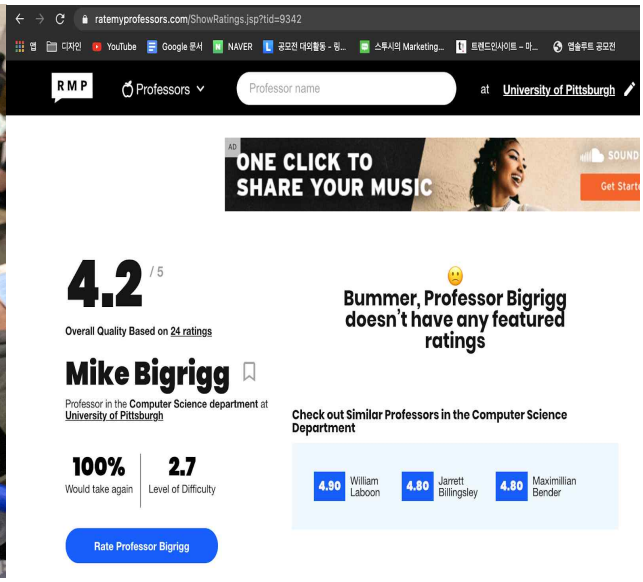
지원 분야	■ 교환학생	□ 중·장기 어학연수	□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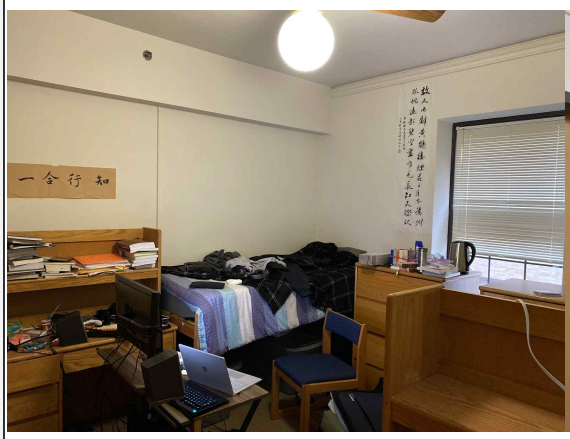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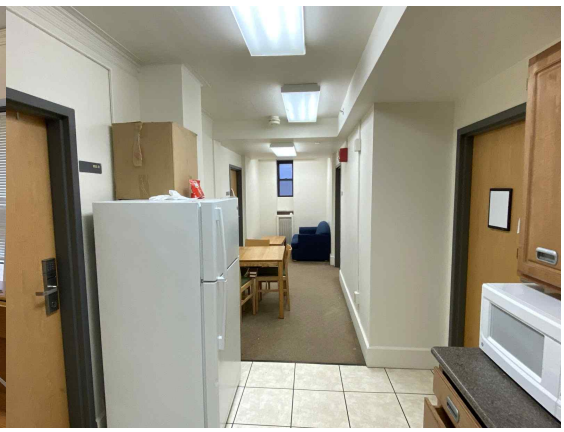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미국	파견 학교	피츠버그대학교
파견 시기	2020년 1학기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Photography 1	사진학 입문	
	Criminalistic	범죄수사학	
	ESL Workshop in composition	글쓰기 수업	
	Introduction to Film	영화학	
	Pilates	필라테스 운동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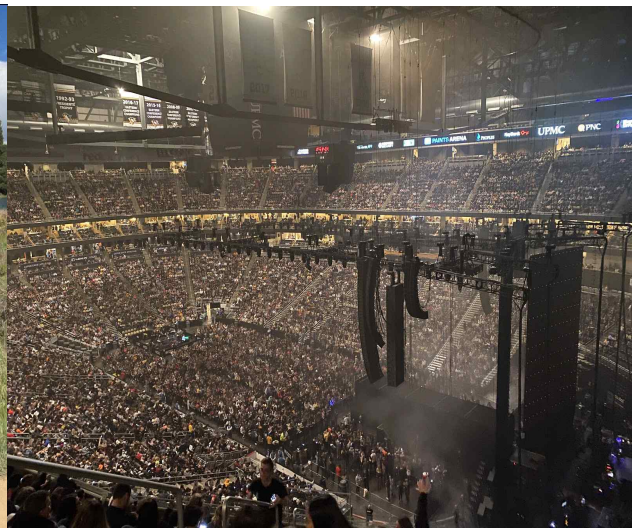
체험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술체육대학 디자인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최진우 학생입니다. 먼저 이 후기는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교환학생 준비, 그 힘겹고 길었던 여정

먼저 저는 지난 2019년 2학기즈음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원 공지사항에 &2020년도 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 공지에 올라오기 전부터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것을 군복무때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고 교환학생을 갈 수 만 있다면, 안가고 싶은 학생은 장담컨대 아무도 없을것 입니다. 그 당시 교환학생에 지원하기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취업 준비 자격증중 인기가 가장 많은 TOEIC(토익) 시험이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면 TOEFL(토플) 시험을 기준으로 최소81점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플이 무슨 시험인고 알아보니 토익은 RC,LC로 구성되어 읽기(독해)와 듣기(리스닝)으로 되어있는 반면, 토플이라는 시험은 Reading,Listening,Speaking,Writing 이라는 무려 4가지의 과목이 하나의 시험으로 존재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때 개인적으로 저는 토플이 진정한 영어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업무영어 논하는 토익에 반해, 토플은 영어를 읽고,듣고,말하고,쓰기를 활용합니다. 즉 영어는 일상생활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4가지를 충족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점수를 도달해야 최소한의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암시할수 있습니다. 암시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을 준비하는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환학생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시기는 한창 군대에 청춘을 바치고 있을 시기였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공부할 환경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때 다녔던 영어학원이 기억이 나 학원을 23살이 되서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독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유학원이나 시내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하지않고, 중학교때 다닌 영어학원 찾아가지?" 라는 궁금증을요. 제 기억속 그 영어학원의 강점은, 시험에 특화된 한국식 영어, 즉 문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닌, 시간내에 빨리 푸는법, 지문을 다 안읽고 정답 찾는법등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것이 아닌,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읽은것들을 제 기억속에 남은것들을 독후감으로 써봄으로써 다시 한번 제가 얻은 지식이나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진정된 영어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택해 그렇게 교환학생 준비를 위한 토플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군 복무중에서의 1년 6개월간의 독학으로, 전역후 실제 시험을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취업준비생들에게는 토익 응시료인 4만5천여원도 피같은 돈이지만, 저에게도 토플의 응시료 또한 $200달러, 즉 한화 22만원의 응시료 또한 저의 피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첫번째 점수에서 최저요구점수 80점을 넘긴 82점을 달성하였습니다.하지만 지난 1년 반을 넘게 준비한 저로써는 썩 마음에 들었던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생각은 "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체험후기	심지어 82점으로써는 막상 지원해보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만약에 이 점수를 조선대 국제협력팀에 제출을 했는데, 서류단계에서 탈락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간 더 공부를 해 2번째 시험을 보아서 도합 44만원을 순수 응시료로 지불하였습니다.제가 여기서 미래의 교환학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플을 준비하되, 실제 시험보기직전까지 쏟아부은 자신이 공부를 한 양,태도, 마음다짐이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았을때, 또는 혹여나 떨어졌을지라도 후회가 남지않을 만큼 공부를 하는것이 추후 미래의 교환학생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플을 준비하다보면 제 경험상 반드시 공부에 대해 슬럼프나 정체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체기를 겪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중에 자신이 교환학생에 지원할 자격이 되냐 안되냐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준비하고있다면, “나는 이미 교환학생을 되기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것은 그저 증명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준비에 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메세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2- 수강신청 먼저 피츠버그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신청후 합격했다면 조선대 국제협력팀 관계자분께서 다음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겁니다, 예를 들어 핏대(피츠버그대학교 줄임말)와 조선대측하고 소통을 할 한명의 교직원을 연결시켜줄건데요, 궁금한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분께 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제 기억으로 개강 2~3개월 전부터도 미리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미국은 한국 대학교와 달리 예비수강신청, 본 수강신청과 같이 정확히 나눠놓은 기간으로 하는게 아니라, 학기중에도 언제든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리미리 어떤 수업을 들을지 파악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있거나, 구글에 &피츠버그대학교 교환학생 후기"를 검색해 보시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중앙대등 다른 대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후기로 어떤게 학점을 잘 주는 꿀강이다, 어떤게 과목이 재밌었다,라고 다양한 의견과 추천을 들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찾은 과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때는 https://www.ratemyprofessors.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교수 이름 및 대학교로 검색 가능합니다. 저는 5가지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Photography 1(사진입문학), Criminalistic(범죄수사학),Pilates(필라테스),ESL Workshop in Composition(글쓰기), Introduction to film(필름영화학) 5과목이며,무조건 12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미국 J1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13학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라서 웬만하면 전공계열과 제가 듣고싶어하는 교양과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피츠버그 대학교에서의 교수진은 정말 특별하고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입문학의 교수분은 젊으신 여성분이셨고, 현직 사진작가로 활동하고계셔서 현직의 입장에서 냉정한 피드백, 하지만 따뜻한 케어를 받을 수 있었고, 범죄수사학은 전직 FBI 과학수사대 출신분께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필름 영화학 또한 피츠버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직 영상제작감독으로 일하시는 분께서 맡아주셨습니다.이와같이 본인이 듣고싶은 과목을 듣는다면 적어도 평범한 배경의 교수분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꿀팁이자 필수사항이지만, 제가 갔다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체험후기	어느 대학교 교환학생이든 자신이 거기서 이수한 과목들은 조선대 학점으로 변환을 하게 될텐데,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대신 자유학점으로 빠집니다. 혹여나 전공학점을 충분히 듣지않고 교환학생을 갔다온다면 4학년 2학기 졸업후 1학기정도 초과학기를 다니셔야 졸업이수학점을 만족하실 수 도 있습니다! 챕터3 - 기숙사 생활 기숙사 생활또한 수강신청 시즌과 비슷하게 옵션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1,2,3 우선순위를 두고, 피츠버그대학교측에서 랜덤으로 자체선정하여 기숙사를 배정받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Quad에 위치한 McCormick Hall이라는 7인실 방을 배정받았는데요,방이 4개가 있어서 두명이 같이 쓰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숙사 건물 옵션으로 Lothrop이나 Tower A,B 는 1인실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ouquet Garden은 비싸고, 위치도 그렇게 좋지않아서 맥코믹 또는 타워, 로스롭 이중에서 고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Pather Central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뷔페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권 사전구매는 수강신청, 기숙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 130 passes(식사권)과 $625dining dollar 을 추천합니다. 끼니당 $15달러로 환산이 되었는데, 뷔페식이니 최대한 많이 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두번씩만 먹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외식 및 dining dollar (학교 매점이나 제휴파트너쉽 맺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가능한 화폐)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맛집 소개로는 기숙사 Tower 건너편 및 Peterson Events Center(스포츠 시설)가는 길에 푸드트럭이 있는데 “Halar food truck”으로, 양고기, 닭고기,소고기중 골라 platters(덮밥), gyro(빵을 감싼것)으로 $7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동네 식당을 가면 패스트 푸드 제외해서 가격이 최소 12달러, 내지 가격대가 있다면 음식 하나에 20달러가 넘어가는걸 볼 수있습니다.또 다른 맛집은 Tower 근처 Five Guys 인데요, 미국 서부에서만 파는 인앤아웃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왜냐하면 패티를 미리 제조된것을 조리하지않고, 거기서 직접 요리하기때문에 육즙과 양, 그리고 풍부한 야채들로 만족스러운 맛을 제공할것입니다. 그다음 제일 자주갔던 아시안 음식인 Spicy Island 식당인데요,가격은 $12달러로 중간 가격이지만, 맛은 최소 $18는 줘야될만큼 맛있습니다. 거기있는 메뉴중 가장 마음에 드는걸 고르면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태국,일본음식이 퓨전되어있어 맛이 익숙하실겁니다.

체험후기	패스트푸드와 건강한 음식의 사이인 Chipotle 또한 추천합니다. 가끔씩 한국음식이 그립다면, Seoul Mart (서울마트)에 가시면 원하시는 대부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옆 대학교인 카네기멜론 대학교 가는방향이며, 15분이면 도착하십니다. 술집 또한 대학가 근처에 정말 많이 있는데요. Hemingways' 부터 시작해서 바 형태인 Mario's 도 있습니다. 챕터4 - 방학 및 여행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달리 2.5개월간 진행되는 학기중 중간쯤에 1주일 조금 넘게 방학을 줍니다. Spring Break or Fall Break 라고 부릅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짐을 싸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갔다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일을 LA에서 지내고, 4일을 San Francisco에서 보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국제선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크게 부담가지지않고 서부나 동부 대도시 뉴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대학교에서는 자체 기획으로 워싱턴DC Trip을 보내주는데요, $50달러로 JW메리엇 호텔 및 버스, 모든 식사, 박물관 입장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1박2일간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최소 $300달러이상 비용이 드니 기회가 된다면 꼭 주최하는 여행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챕터5 - 문화 생활 및 미국생활 팁 피츠버그에서의 문화생활은 차고 넘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학교내 가장 큰 체육관인 Peterson Events Center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농구경기 직관하였고, 팝,힙합가수 Post Malone 콘서트 투어를 갔다왔습니다. 이와같이 피츠버그에 1년에 몇번 톱스타들이 투어를 돌며 공연을 하는데, 타이밍이 잘 맞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실것같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으로 생활비를 받으실 계좌가 필요한데, 은행은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대기업 은행 PNC BANK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츠버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어서 도보 5분미만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설령 영어를 잘 못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적금계좌인 savings account가 아닌 생활비 계좌인 checking account를 만들려고 왔다고 하면 됩니다. ATM기기 또한 한국어가 지원되기때문에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시에도 별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부화재 유학생보험을 가입하여서 5천만원한도로 잡고 보장받았습니다.핸드폰 현지 유심은 대기업인 T-Mobile이나 AT&T보다는 저렴한 Mint Mobile을 이용하였습니다! 굳이 비싼 통신사를 선택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겨울학기는 대략 1월5일쯤 개강하는데, 저는 일주일 먼저 도착하여 시차 적응 및 환경 적응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곳 돌아다녀보면서 미국 공기도 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에 합격하시면 1학기 내지 길게는 1년을 갔다오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꿈같은 생활과 기억으로 남아있어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의 최고 장점은 비싼 해외대학의 학비 대신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으로 갔다오며, 현지의 분위기와 문화를 새로 배우고, 지금까지 알지못했던 지식들도 배우게 되 매우 좋은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가끔씩 힘들때가 오면 이렇게 좋았던 시절을 되돌아 보며 저를 위로하고는 할만큼, 여러분들게 기회는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탐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